

외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Received: April 15, 2021
Revised: May 17, 2021
Accepted: May 24, 2021

김주련¹, 송하나²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¹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아동청소년학/ 교수²

교신저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아동청소년학/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jni4ever@skku.edu

The Influence of Grandmothers' Attitude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on Mothers' Attitude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JooReun Kim¹, Hana Song²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h. D.¹
Department of Social Innovation Convergence/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²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양육에 참여한 외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223명과 그 가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MESQ 등을 한글로 번안하고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두 변인 모두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유아의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보고로, 사회능력은 교사의 평정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변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에는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능력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할머니의 정서적 행동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며, 할머니가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직접적인 주체라기보다 어머니의 조력자로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능력을 증진시키는 어머니의 정서코칭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표현, 수용태도, 할머니, 정서조절, 사회능력, 세대 간 전이

전통적인 확대가족 체계에서 할머니들은 손자녀의 양육에 관여해 왔다(Barranti, 1985).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에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할머니의 양육 참여가 유아 돌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서, 할머니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원 등, 2018). 특히, 어린 손자녀의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할머니들은, 손자녀에게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 이외에도, 유치원 등원, 또래활동 지원 등에 관여하며 유아들과 직접 상호작용한다(King & Elder Jr., 1997).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할머니들은 손자녀들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서표현 신념과 가치(Copen & Silverstein, 2008) 등을 손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즉, 할머니는 손자녀 양육의 주체이자 정서사회화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정서사회화를 다룬 연구(e.g.,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McCoy & Raver, 2011;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들은 부모를 통한 정서사회화 과정에 주로 관심을 가져온 반면, 할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여 왔다. 가정 내에서 부모들은 유아와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반응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가 정서표출규칙을 학습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조절은 가족 전체의 정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Halberstadt, 1986; Morris, et al., 2007; Saarni, 1985) 구성원 각각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의 정서적 반응은

의미 있는 정서사회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부모와 비교하여 할머니는 유아의 정서적 코칭이나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자녀와 손자녀 모두에게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자로서 할머니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할머니들은 자신을 자녀의 조력자로 생각하였고 자녀와 손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 또는 든든한 지원자로 인식하였다(이영은, 강수경, 정미라, 2018). 무엇보다, 할머니들은 어머니와 비교하여, 의사소통이나 놀이에서 바로 통제를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손자녀의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이영은 등, 2018; Barnett, Scaramella, Neppl, Ontai, & Conger, 2010; Belsky, 1984; Spieker & Bensely, 1994). 즉, 유아의 정서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할머니의 태도가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서사회화 관련 행동 중 특히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 태도에 초점을 맞추려 하였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을 모두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형을 검증해보려 하였다. Belsky(1984)의 모델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할머니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 연구들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Copen & Silverstein, 2008; Li, Ahemaitijang, Han, 2018).

정서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들(임미혜, 이승연, 2014; 지연경, 하유미, 윤기봉, 2014)에서, 포괄적으로 할머니의 영향을 살펴보면, 할머니가 심리적

지지자이자 친밀감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직접적으로 손자녀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 할머니가 권위 있고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때 유아는 문제 행동을 적게 나타냈다(고미지, 박우철, 2018). 어머니가 서툰 양육기술을 보이는 경우에도,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할머니의 태도가 손자녀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1993).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영향에 관계없이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할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조손가정에서 손자녀의 주양육자인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고, 공동 양육자로서 할머니와 부모를 함께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할머니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녀관계 또는 고부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가 어머니와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다르면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최혜정, 정미라, 2019) 이러한 갈등은 모녀관계와 고부관계에 모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행동은 어린 시절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Bailey, Hill, Oesterle, & Hawkins, 2009; Van Ijzendoorn, 1992)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할머니가 아닌 외할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지는 세대적 전이를 살펴보려 하였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어릴 때 경험한 할머니의 양육행동과 발달적 역사(Belsky, 1984; Belsky, Steinberg, & Draper, 1991)를 통해 유아에게 간접적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어린 시절 경험이 개인적 특성을 결정하고, 이후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며 가치와 행동 체계를 구성하기 때

문에,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관련 행동은 외할머니에 의한 정서사회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Ravel과 Walker(2019)도 정서사회화가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가치와 목표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외할머니로부터 세대를 이어 전달된 정서적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 역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지는 세대 간 전이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Brook, Zhang, Balka, & Brook, 2012; Hancock, Mitrou, Shipley, Lawrence, & Zubrick, 2013).

또한, 외할머니는 경제적 지원자이자 안정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주는 양육지원자로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고(Caldwell, Antonucci, & Jackson, 1998; Spieker & Bensely, 1994) 정서조절을 도우며(박수연, 도현심, 김민정, 송승민, 2014), 어머니가 자녀와 안정애착을 잘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Spieker & Bensely, 1994). 또한, 외할머니가 있는 원가족의 정서성이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정서적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대광, 김영희, 2013). 즉,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적 관계가 어머니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Barnett 등(2012)은 세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적 정서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할머니와 유아와의 관계는 부모의 개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Xu, Silverstein, & Chi, 2014), 할머니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도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관련 연구들 외에,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다시 어머니에게서 유아들에게 전이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결혼 전 자신의 어머니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에게도 긍정적 양육 행동을 보인다(Chen & Kaplan, 2001)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할머니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효율적인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보일 것이다.

양육자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Chan, Bowes, & Wyver, 2007)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부모를 가장 중요한 정서사회화의 주체로 다루어왔다. 유아의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행동이 유아들이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1993). 반대로, 유아의 부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각성을 높이고 비구조적 행동을 활성화시켜, 결국 정서조절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8).

국내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중 정서지도(여은진, 이경옥, 2009)나 정서중심 반응(강도연, 김희태, 2018)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혜와 정윤경(2016)의 연구에서도, 부적 정서가 가지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격려하고 정서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처럼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영향력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때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과 변인들 간의 상

호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려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이 더 나아가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려 하였다. Eisenberg 등(1998)의 모델은 정서능력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일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김청 등(2015)은 부모의 정서적 반응과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학교 적응과 같은 사회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송하나와 최경숙(2006)에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혜린과 이영(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아의 정서조절 만이 유아의 사회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들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 유아의 사회능력으로 이어지는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와 더불어, 공동 양육자이자 양육 보조자로서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사회화의 세대적 전이를 알아보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능력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역시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능력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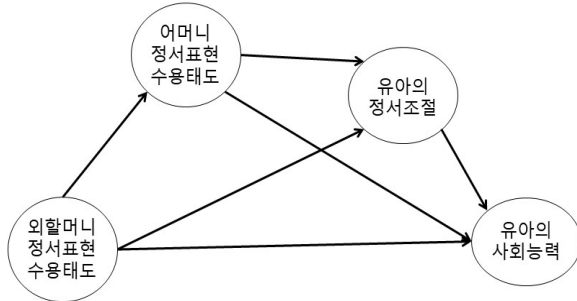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Y시에 소재한 유치원 3곳의 재원생 223명과 그 가정이었다. 참여를 지원한 가정 중, 외할머니가 유아의 양육에 직접 참여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참여 대상인 유아는 만 3세 76명, 만 4세 76명, 만 5세 71명이었다. 어머니는 30~40대 였으며, 할머니의 연령은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였다.

연구도구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Lagacé-Séguin와 Coplan(2005)의 Maternal Emotional Styles Questionnaire(MESQ)와 Saarni(1990)의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를 할머니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원래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었으나 11개의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할머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묻는 문항들로 수정하였다. 안면타당도 검증결과 할머니의 맥락에 타당하다고 평가된 35문항을 최종 선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부하량이 낮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을 삭제하여 최종 25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선택된 25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각각 .59~.71, .41~.61이었으며, 두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한 가지 요인으로 요인점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요인점수는 -3.09~2.28이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77이었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인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할머니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에 4점 리커트 척도(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할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격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Lagacé-Séguin와 Coplan(2005)의 Maternal Emotional Styles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ESQ는 정서코칭(EC: Emotion-coaching)과 정서무시(ED: Emotion-dismissing)의 두 하위 요인에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코칭은 자녀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가 정서조절을 하도록 돕는 행동이다. 이에 비해, 정서무시는

자녀의 정서표현을 통제하거나 무시하고 정서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코칭 17문항과 정서무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요인적재치는 각각 .42~.75, .40~.79이었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슬퍼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갖는다.” 등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5=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답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정서코칭에서 .89, 정서무시에서 .84였다.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은 Shields와 Cicchetti(1997)가 제작한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여은진, 이경옥(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ERC는 하위 요인인 적응적 정서조절의 9문항과 불안정/부정적 정서의 15문항을 더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17문항을 선별하였다. 일상적으로 자녀가 보이는 정서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등의 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부적 문항을 역코딩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7문항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유아의 사회능력

유아의 사회능력은 Rydell 등(2003)의 Social Competence Inventory(SC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SCI는 원래 두 하위 요인에 총 25문항(친사회성[Prosocial Orientation] 17문항, 사교

적 주도성[Social Initiative]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치원 담임 교사가 ‘놀이에 수줍은 친구를 포함시킨다’ 등의 문항을 읽고 5점 리커트 척도(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친사회성에서 Cronbach's α 가 .92였으며 사교적 주도성에서는 .79였다.

연구절차와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과 과정을 검토(IRB No. SKKU 2019-05-005)받은 후,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도구의 안면타당도와 맥락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설문지를 Y시에 위치한 유치원 3곳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설문지들을 테이프로 봉인하여 참여에 동의한 가정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회수하였다. 또한,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유아의 사회능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미응답이 많은 것, 설문지나 동의서가 누락된 것, 그리고 외할머니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난 223가정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SPSS Inc., Chicago, IL)와 AMOS 18.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먼저 변인들의 왜도,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조건을 확인한 후,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형적합도 지수에 따라 모델을 수정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Bootstrapping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초분석 및 상관 분석 결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았다(표 1).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코칭($r = .25, p < .001$)과 유아의 정서조절($r = .17, p < .05$)에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코칭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46, p < .001$)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능력에 대해서는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변인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 즉, 기초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제안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7) = 40.26 (p < .001)$, TLI = .55, CFI = .79, RMSEA = .15 (90% CI [.10, .19])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이용하여 공분산 설정을 통해 수정한 결과, 수정모형의 최종 모형적합도는 $\chi^2(6) = 22.52 (p = .001)$, TLI = .74, CFI = .90, RMSEA = .11 (90% CI [.07, .16])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최종 모형에서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코칭이 더 높

표 1. 변인 간 상관

변인	1	2	3	4	5	M	SD	왜도	첨도
1.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					.00	1.00	-.20	-.40
2.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정서코칭)	.25***	-				71.81	7.75	-.62	.71
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정서무시)	.10	.27***	-			34.30	6.36	-.18	-.04
4. 유아의 정서조절	.17*	.46***	.15	-		55.04	6.70	-.22	-.24
5. 유아의 사회능력(친사회성)	.02	-.06	-.03	.11	-	40.27	8.53	.21	-.26
6. 유아의 사회능력(사교적 적극성)	-.07	-.11	-.04	-.11	.52***	20.99	4.49	-.20	-.06

N = 22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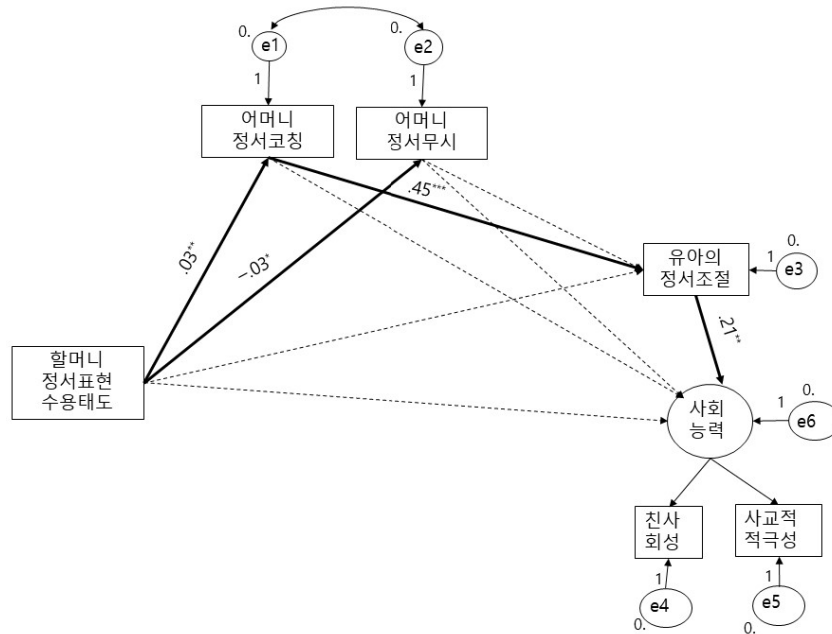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

$N = 223$. * $p < .05$. *** $p < .001$.

고($\beta = .03, p < .01$), 정서무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 p < .01$).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중 정서코칭 경향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높은 것을($\beta = .45, p < .001$)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가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1$). 그러나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어머니 정서코칭이 유아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정서무시가 유아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사회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각 변인들에 대한 직접적 영향 외에 모형에서 나

타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Bootstrapping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에 이르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01, p < .05$).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정서코칭과 유아의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회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코칭에서 유아의 사회능력으로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 p < .05$). 그러나 유아의 정서조절이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직접 매개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경로의 직접, 간접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할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	→ 어머니의 정서코칭	.03*		.03*
	→ 어머니의 정서무시	-.03		-.03
	→ 유아의 정서조절	.06	.01*	.07
	→ 유아의 사회능력	.02	.01	.03
어머니의 정서코칭	→ 유아의 정서조절	.45***		.45***
	→ 유아의 사회능력	-.16	.09*	-.07
어머니의 정서무시	→ 유아의 정서조절	.02	.00	.02
	→ 유아의 사회능력	-.02		-.02
유아의 정서조절	→ 유아의 사회능력	.21*		.21*

N = 223. *p<.05. ***p<.001.

논 의

본 연구는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적 전이를 알아보고, 할머니가 정서사회화의 주체로서 손자녀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경험했던 할머니의 양육 행동과 정서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는 손자녀인 유아의 양육에 참여하는 외할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Bootstrapping을 통해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하위 요인 중에서,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정서코칭에는 정적, 정서무시에는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이는 정서적 경험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할머니를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신의 자녀인 유아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서적 문제해결을 격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Belsky(1984)가 애착이론에서 주장한대로, 어머니의 어린 시절 발달적 경험이 성격적 특성과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결혼 후 자녀의 양육을 통한 정서사회화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Chen과 Kaplan(2001) 역시 할머니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유사한 연결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원가족의 정서성이 긍정적일 때 어머니가 높은 공감능력과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을 보인다는 김대광, 김영희(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양육자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더 나아가 그다음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유의한 관계

는 동시대에 함께 유아 양육에 시간을 함께하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모녀기간인 할머니와 어머니 간에 유아의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할머니는 어머니의 양육을 돕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다(Belsky, 1984). 선행 연구들에서, 할머니는 스스로를 자녀의 양육을 돕는 조력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이영은 등, 2018), 또한, 할머니와 손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Barnett et al., 2012; Xu et al., 2014)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Giudice와 Belsky (2011)는 양육자들이 서로의 양육 행동을 가까이에서 접했을 때 서로 모방하고 수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적인 관련성은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서로의 방식을 관찰하고 중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할머니가 모자간에 일어나는 정서사회화의 조력자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변인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정서코칭과 유아의 정서조절을 이중 매개로 유아의 사회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개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할머니의 높은 정서표현 지지가 자녀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어머니의 코칭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어머니의 정서코칭에 의해 증진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사회화에서 할머니의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을 모두 가정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할머니가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주제로

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대신, 어머니를 거치는 정서사회화 행동의 세대적 전이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몇 선행 연구들(강도연, 김희태, 2018; Sabatier, 2005)에서도 유아에 대한 할머니의 간접적 영향력이 보고되었는데, 정서에 대한 할머니의 신념이 어머니의 정서적 신념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다시 유아의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 역시, 할머니가 어머니의 정서적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손자녀에게 결국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할머니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중 정서코칭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코칭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Ellis, Alisic, Reiss, Dishion와 Fisher(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코칭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대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코칭이 취약한 가정환경에서도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코칭은 유아의 정서적 경험에 가치를 두고,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에서 이를 억지로 통제하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정서코칭은 유아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Gottman, Katz, & Hooven, 1996; Lunkenheimer, Shields, & Cortina, 2007).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열린 대화를 통한 어머니의 정서코칭이 유아에게 정서적 지지감을 주고 정서조절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모두 유아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대신, 유아의 정서조절만이 유아의 사회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치원의 또래 상호작용에서도 높은 친사회성과 사교성을 보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서혜린과 이영(200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아의 사회능력을 예측한 것은 어머니의 변인이 아닌 유아의 정서능력뿐이었다.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능력과의 관계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인적 상황에서 상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사회 적응에 중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육자의 정서코칭과 유아의 사회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태도와 사회능력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Baker, Fenning, & Crnic, 2011). 특히, Buckholdt, Kitzmann와 Cohen(2014)는 부모의 높은 정서코칭이 열악한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일반적인 사회능력이나 긍정적 자아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사회능력이 유아의 특성이나 다른 제3의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정서사회화 관련 행동들 중에서, 정서표현 수용태도 이외에 유아의 사회능력을 예측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다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능력을 친사회성과 사교성의 두 가지 면에서 정의

하였으나, 실제 또래 상호작용에서 사회능력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능력, 관계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더 확장된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후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언급한다면,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할머니 변인을 그 자녀인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어머니의 어릴 적 발달 경험에서 정서사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연로하신 할머니의 경우 여러 문항을 읽고 답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현실적 제한 때문이다. 그러나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대한 할머니 자신의 보고와 어머니의 보고를 비교하여 함께 고려하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할머니만을 대상으로 어머니로 이어지는 세대적 전이를 살펴보았으나 친할머니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정서적 행동은 모녀관계 뿐 아니라 고부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함께 표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할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어릴 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며느리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외할머니와의 차이를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중, 긍정적인 정서코칭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서무시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유아의 정서능력을 저해한다고 밝혀진 만큼(Eisenberg et al.,

1998; Grolnick & Gurland, 2002), 후속 연구에서 정서무시의 영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역시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상세히 나누어 검증한다면,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육 방안을 더 정교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도연, 김희태 (201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259-279.
- 고미지, 박우철 (2018). 맞벌이 가족 내 부부 적응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6(1), 109-131.
- 김대광, 김영희 (2013). 기혼남녀의 원가족 정서성과 공감능력 및 배우자 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149-165.
- 김 청, 이효림, 정정희 (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2), 123-144.
- 박수연, 도현심, 김민정, 송승민 (2014).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 후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2), 117-136.
- 서혜린, 이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송하나, 최경숙 (2006).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1), 51-65.
- 여은진, 이경옥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75-295.
- 이영은, 강수경, 정미라 (2018). 조부모교육에 참여한 할머니들의 조모됨의 변화. **유아교육연구**, 38(1), 261-287.
-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윤진, 윤지연, 염혜경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가구조사 보고**. 세종: 보건복지부.
- 임미혜, 이승연 (2014). 청년기 손자녀-친/외조부모간 유대와 접촉, 가치유사성 및 부모-조부모 관계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4(2), 277-297.
- 신주혜, 정윤경 (2016).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적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2), 21-42.
- 지연경, 하유미, 윤기봉 (2014). 3세대 가족의 조부모와의 관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1-24.
- 최혜정, 정미라 (2019).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가 성인자녀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고부관계와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24(2), 99-118.
- Bailey, J. A., Hill, K. G., Oesterle, S., & Hawkins, J. D. (2009). Parenting practices and problem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Monitoring, harsh discipline, and drug use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14-1226.
- Baker, J. K., Fenning, R. M., & Crnic, K. A. (2011). Emotion socialization by mothers and fathers: Coherence among behavior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itud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20(2), 412-430.
- Barnett, M. A., Mills-Koonce, W. R., Gustafsson, H., Cox, M.,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2). Mother-grandmother conflict, negative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multigenerational families. *Family Relations*, 61(5), 864-877.
- Barnett, M. A., Scaramella, L. V., Neppl, T. K., Ontai, L. L., & Conger, R. D. (2010). Grandmother involvement as a protective factor for early childhoo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635-645.
- Barranti, C. C. R. (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3), 343-35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Steinberg, L., & Draper, P. (1991). Childhood experience, interpersonal development, and reproductive strategy: An evolutionary theory of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2(4), 647-670.
- Brook, J. S., Zhang, C., Balka, E. B., & Brook, D. W. (2012). Pathways to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three-generation stud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3(2), 175-197.
- Buckholdt, K. E., Kitzmann, K. M., & Cohen, R. (2014). Parent emotion coaching buffers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poor peer relation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3(1), 23-41.
- Caldwell, C. H., Antonucci, T. C., & Jackson, J. S. (1998). Supportive/Conflictual family relation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Teenage mother and grandmother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47(4), 395-402.
- Chan, S. M., Bowes, J., & Wyver, S. (2007). Parenting style as a context for emotion socializa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4), 631-656.
- Chen, Z.,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 Copen, C. E., & Silverstein, M. (2008). The

- transmission of religious beliefs across generations: Do grandparents matter?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9(1), 59-71.
- Denham, S. A.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Pathway to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7(3), 205-22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llis, B. H., Alisic, E., Reiss, A., Dishion, T., & Fisher, P. A. (2014). Emotion regulation among preschoolers on a continuum of risk: The role of maternal emotion coach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6), 965-974.
- Giudice, M. D., & Belsky, J. (2011). The development of life history strategies: Toward a multi-stage theory. In D. M. Buss & P. H. Hawley (Eds.) *The evolution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p. 62-82).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rolnick, W. S., & Gurland, S. T. (2002). Mothering: Retrospect and prospect. In J. P. McHale & W. S. Grolnick (Eds.),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families* (pp. 5-33). Mahwah, NJ: Erlbaum.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ncock, K. J., Mitrou, F., Shipley, M., Lawrence, D., & Zubrick, S. R. (2013). A three generation study of the mental health relationships between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BMC Psychiatry*, 13(1), 1-21.
- Jones, M. R. (1993). *Adjustment of children reared by their grandparents*.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ED 373286)
- King, V., & Elder Jr., G. H. (1997). The legacy of grandparenting: Childhood experiences with grandparents and current involvement with grand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4), 848-859.
- Lagacé-Séguin D. G., & Coplan R. (2005). Maternal emotional styl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Assessment, correlates, outcomes and goodness of fit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4(4), 613-636.
- Li, J., Ahemaitijang, N., & Han, Z. R. (2018). Grandparents' parenting on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The serial mediation of parents' psychological

- control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9(17), 3996-4018.
- Lunkenheimer, E. S., Shields, A. M., & Cortina K. S. (2007). Parental emotion coaching and dismissing in family interaction. *Social Development*, 16(2), 232-248.
- McCoy, D. C., & Raver, C. C. (2011). Caregi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mong head start families. *Social Development*, 20(4), 741-76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Ravel, V. V., & Walker, B. L. (2019). Unpacking 'culture': Caregiver socialization of emotion and child functioning in diverse families. *Developmental Review*, 51(1), 146-174.
- Rydell, A.,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 to 8-year-old children. *Emotion*, 3(1), 30-47.
- Saarni, C. (1985). Indirect processes in affect socialization.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Genesis of Behavior vol. 5*. (pp. 187-209). Boston: Springer.
- Saarni, C. (199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PACES)*.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ED317301)
- Sabatier, C. (2005). Transmission of family values and attachment: A French three-generation study. *Applied Psychology*, 54(3), 378-395.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pieker, S. J., & Bensley, L. (1994). Roles of living arrangements and grandmother social support in adolescent mothering and infant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102-111.
-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1), 76-99.
- Xu, L., Silverstein, M., & Chi, I. (2014). Emotional closeness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rural China: The mediating role of the middle generation.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2(3), 226-240.

The Influence of Grandmothers' Attitude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on Mothers' Attitude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JooReun Kim¹

Hana Song²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h. D.¹

Department of Social Innovation Convergence/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grandmother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on the mother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 total of 223 children (aged 3 to 5 years) and their famil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nly maternal grandmothe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Grandmothers' and mother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s were measured by maternal reports using revised versions of Korean translations of the Maternal Emotional Styles Questionnaire. Mothers also rated the children's ability to regulate emotions, while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evaluated by teachers' ratings in kindergarten settings. Results showed that grandmother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positively affected the mothers' attitudes. Grandmother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were not directly linked to child variables, but instead affec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via the mothers' attitudes towards children's emotion express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particular, only the direct effect of th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significa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Keywords : Attitudes, Emotion Expression, Grandmother, Emotion Regulation, Social Competenc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